

“변전기술 중요성 알릴 좋은 기회”

변전전문회사협의회, 기술정책 세미나 변전중목 신설 전기공사가능경기대회 관심 당부

변전전문회사협의회(회장 박근욱)는 7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변전의 재발견 그리고 변전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특강을 맡은 한전 김성암 경남지역본부장, 이봉희 민원대책처장을 비롯한 한전 관계자와 정원영 한국전기공사협회 이사, 김종오 전기공사공제조합 부이사장 등 협·단체 관계자, 변전전문기업 대표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변전협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행사는 급변하는 전력산업 환경에 발맞춰 변전전문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무지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21일 대전 폴리텍대학에서 개최되는 전국 전기공사 가능경기대회에 처음으로 변전분야 종목(주변압기 OLTCS분해, 조립)이 신설돼 변전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박근욱 협의회 회장은 “꿈만 같았던 변전기술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준 종사자들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한전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변전전문회사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협의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암 한전 경남지역본부장은 ‘전력산업발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특화된 기술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변전전문기업의 미래를 단언하기 어렵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변전자동화, 예방진단 등과 관련된 특화된 기술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 풍력 등과 관련된 디지털 예방진단 전문분야에 진출하고 국내에

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등 사업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봉희 한전 민원대책처장은 ‘전기의 역사와 미래’의 특강을 통해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력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전전문회사는 협의회 소속 114개사, 협력회 소속 41개사, 제작사 8개사 등 총 163개사에 달한다.

대전=진시현 기자 jinsh@

스마트시티워크를 통해 본 국내 스마트시티 산업의 '명'과 '암'

전시회장 '복적' 상담회장 '텅텅'

다양한 지자체 사례통한 벤치마킹 'YES', 홍보 부족에 인력모집 'NO'

스마트시티 글로벌 트렌드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월드스마트시티워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6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한 대규모 국제행사인 '제1회 월드스마트시티워크'를 김천에서 개최했다. 8일까지 3일 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로 꾸러졌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월드뱅크와 UN 해비타트 등 국제기구와 IBM, MS 등 글로벌 기업, 해외 석학, 국내외 도시 관계자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가 됐다.

월드스마트시티워크는 국내 최초의 스마트시티 관련 대규모 국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208개의 업체가 자사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홍보할 수 있었고, 한국의 기술과 해외시장 동향에 관심을 갖고 있는 15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소해야 할 부분도 일부 도출됐다는 평가다. 다양한 지자체 사례를 통해 스마트시티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홍보 등이 부족해 인력 모집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벤치마킹 사례 'Good!'= 이번 행사에는 대구시, 고양시 등 9개의 지자체가 부스를 내고 지역별 우수한 스마트시티 사업모델을 홍보했다. 국내에서 점차 스마트시티 사업이 활기를 띠는 지금 각 지역별 특색을 담은 사업 모델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지자체들에게 좋은 벤치마킹 모델이 됐다. 이번 지자체 부스들에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상품과 서비스가 다수 전시됐다. 각종 컨소시엄을 통해 지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된 점도 이번 전시회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대구시는 태양광 스마트 쓰레기통 벤치마킹을 전시했다. 현재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는 태양광 스마트 쓰레기통 4대와 태양광 스마트 벤치 2대가 설치 운영 중이다. 태양광 스마트 쓰레기통은 태양광을 이용해 쓰레기를 압축하고, 쓰레기가 충분히 모이면 수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환경미화원에게 보낸다. 태양광 스마트 벤치는 태양광을 이용해 벤치에 설치된 USB를 이용하거나 무선으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다.

IoT·복합 시민단위 조성사업을 선 보인 고양시 부스는 관람객으로 붐볐다. 현재 시민에게 제공되지 않지만, 고양시에서는 '고양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 중 하나인 안심 주차 서비스는 초등학교 스쿨존과 자유로 갖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음성안내나 지시등을 통해 차량 이동을 유도한다.

◆스마트시티 인재 어떻게 모집할까 'Bad!'= 월드스마트시티워크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기업들의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는 물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세션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 중 눈에 띄는 부대행사 가운데 하나가 채용상담회다. 그동안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해당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채용상담회를 찾는 구직자는 거의 없다가 되었다. 관람객들로 전시회장이 붐볐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시회

장과 상담회장의 온도차는 컸다.

취재를 위해 찾은 상담회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취재 중 수차례 상담회장을 찾았지만 매번 같은 풍경이었다. 상담회에 부스를 둔 한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자 방문 전까지 고작 한 명이 부스를 찾았다고 답했다. 이 기업의 방문목에는 방문자의 이름 하나가 외롭게 적혀 있었다. 다른 기업도 사정은 비슷했다.

상담회에 참가한 한 공공기관은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채용과는 관계없이 부스를 설치하는 모습도 보였다. 공공기관 성격상 공개채용을 시행하다 보니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직군을 따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기관의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와 관련해 “스마트시티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채용 설명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구직이 많지 못한 부스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원인이다.

이번 상담회에 부스를 낸 한 업체는 이처럼 한산한 상담회장 분위기와 관련해 “스마트시티 분야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이 없다. 달리 말하면 홍보가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일하려면, 자기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융합하려는 생각이 필요하다. 꼭 상담회장이 아니더라도, 행사에 이런 인재를 찾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이나 도시계획, 전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력 분야 취업은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인재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대원·조재혁 기자 ydw@

NCS 활용해 기업 경쟁력 높인다 ③ 벽산파워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벽산파워(대표 황영식)는 최근 들어 철도전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철도 분야에 진출한 벽산파워는 업계에서는 후발 주자에 속한다. 그러나 공격적인 투자와 우수 인재 확보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최근 철도전기공사의 감리업에 여러 수주하며 업계 리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벽산파워가 국내 철도 건설 시장에 기여한 바도 크다. 벽산파워는 경부고속철도 감리,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설계·감리, 호남·수도권고속철도 설계·감리 등 주요 노선별 건설 공사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왔다.

특히 최근에는 원주~강릉 간 복선 전철과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등 주요 사업들에 참가하면서 명실상부한 철도전기 분야 선도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벽산파워가 짧은 역사 속에서도 이처럼 두각을 보이는 것은 엔지니어링 기업의 기본인 '인재'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재를 꼽는다.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 대부분이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것보다 보니 기술자를 관리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벽산파워는 최근 전기·에너지·자원산업 인적자원위원회(ISO)의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

다. 그 결과 올해 NCS를 활용한 신규 기술인력을 채용했을 뿐 아니라, 올해 중 추가채용 계획까지도 수립하고 있다는 게 벽산파워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공격적 투자·우수인재 확보 힘입어 후발주자 불구 업계 리더 기업 우뚝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등 국내 철도전기분야 선도 NCS컨설팅 활용, 현장 투입할 기술인력 채용 주요



게 NCS 컨설팅의 강점이다. NCS를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은 물론 업체와 교육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력이 핵심가치인 엔지니어링 기업에 특히 안정마춤인 제도라는 얘기다.

벽산파워는 NCS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나 발주처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대원 기자 ydw@

인천공항, 러시아 진출길 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자:김정하)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사할린주정부, 오로라항공과 사할린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공항건설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할린주 공항 개발과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왼쪽부터)로스토펠린 수호레블크 오로라항공 사장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주지사가 손을 마주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시민들의 요구 해결할 대안”

'제1회 월드스마트시티워크'서 이자즈 바스퀘즈 월드뱅크 수석이사 기조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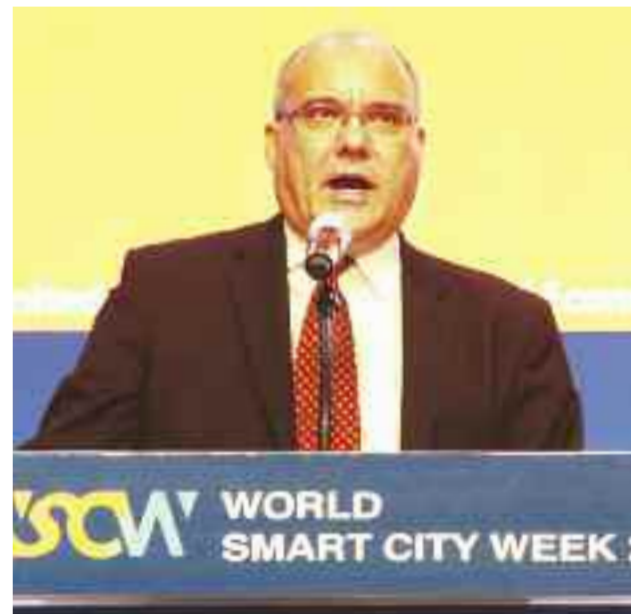
“스마트시티의 주요 이슈는 언제나 시민이어야 한다.”

6일 이자즈 바스퀘즈 월드뱅크 수석이사는 제1회 월드스마트시티워크 개막 기조연설에서 “스마트시티는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열망을 해소하는 기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바스퀘즈 수석이사는 기조연설 서두에서 “전 세계에서 50%에 해당하는 인구가 도시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라며 “이 같은 도시화로 인해 주택·교통·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 지원 아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해야 하며, 기술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스퀘즈 수석이사는 스마트시티를 통해 도시와 사회의 변화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강화된 연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사를 결정하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술과 사람이 결합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시티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

바스퀘즈 수석이사는 “스마트시티는 도시가 갖는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이며 도시와 도시, 도시와 시민 간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정부는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민들을 위해 활용하고 시행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스마트시티는 결국 21세기 도시발전을 위한 근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전기공사사업 양도·양수 공고

세일전설공사(대표자:김정하)는 (주)백아전력(대표자:김경하, 최현숙)에게 전기공사사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양도대상 전기공사사업 종류: 경기-01742호
- 양도(예정)일: 2017년 9월 19일
- 양도자: 상 호: 세일전설공사
대 표: 김정하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암로 15, 15층 101호(수원동)
전 화: 031)746-2880
- 양수자: 상 호: (주)백아전력
대 표: 김정하, 최현숙
주 소: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용계길 23
전 화: 010-5038-1036

2017. 9. 11
양도자: 세일전설공사 대표 김정하

전기공사사업 양도·양수 공고

남경전력공사(대표자:정동균)는 주식회사 남경전선(대표자:정동균)에게 전기공사사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양도대상 전기공사사업 종류: 서울-01394호
- 양도(예정)일: 2017년 9월 19일
- 양도자: 상 호: 남경전력공사
대 표: 정동균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봉로 12길 6 (순천동)
전 화: 02)3672-5500
- 양수자: 상 호: 주식회사 남경전선
대 표: 정동균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봉로 12길 6, 103호
전 화: 02)3672-5500

2017. 9. 11
양도자: 남경전력공사 대표 정동균

전기공사사업 양도·양수 공고

우진산업(대표자:서진강)은 금성엔지니어링(주)(대표자:김태수, 서진강)에게 전기공사사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양도대상 전기공사사업 종류: 울산-00313호
- 양도(예정)일: 2017년 9월 18일
- 양도자: 상 호: 우진산업
대 표: 서진강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해운로3길 29
전 화: 052)296-4660
- 양수자: 상 호: 금성엔지니어링(주)
대 표: 김태수, 서진강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서해로 190-4(소곡동)
전 화: 010-4591-5913

2017. 9. 11
양도자: 우진산업 대표 서진강